

“ 남(他者)을 위한 교회 ”

■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 갱신이 선교를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다. 그러나 이 갱신의 목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못한다. 흔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빈 좌석을 채우는 것으로 갱신의 목표를 삼기도 한다. 목사는 자기의 수고의 대가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열매로 나타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바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대다수가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의 배후에 있는 기본 동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 확장을 위하여 구조 갱신을 추구해야 한다면 성경 원리와는 배치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他者)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sending God)이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파송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하여 성령도 보내셨고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파송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써 유산으로 물려받은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목회의 형태에 진실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종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 성육신 사건은 동시에 제도적인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대체할 유연성을 요구한다. 즉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함의성을 교회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 즉 하나님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 나라의 내용은 의(義)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의와 평강(shalom)과 희락이다. 이 살롱은 상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건이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이며 피조물의 궁극적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を 포함한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의와 살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징조를 알아차리고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선포하는 일 외에 교회가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한 민족, 어느 특정 교회에 속박될 수 없음도 깨달아야 한다. 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입력구조(come-structure)에서 출력구조(go-structure)로 전환시켜야 한다. 출력구조란 교회 영역을 떠나서 세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출력(going)이란 자체확장의 모든 관념을 버리는 뜻이고 교인 수나 교회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심을 갖기보다 남(他者)을 위한 종의 형태의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달려온 한국교회는 그 안에 무리(crowds)는 있으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 걸만 요란한 속빈 강정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는 교회(Self-giving Church)요 남(他者)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다. 남(他者)을 위한 교회는 재정적 또는 인력자원을 남(他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부요했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세상 재물에 부요한 교회들은 자신들이 종의 형태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 소유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정으로 교회 예산의 60%를 밖으로 남(他者)을 위해 지출하는 교회, 잘 훈련된 일꾼을 개척교회와 세상 앞에 파송하는 교회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한국장로신문 [제 1354호] 2013년 2월 2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일 4부 예배 형태를 유지하여 왔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수칙 범위내에서 좌석 배치를 다소 조정하여 본래대로 3부 예배 형태로 복귀합니다.

물론 영상예배와 함께 병행하며, 1부와 3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는 흥해작전 승전감사예배로 함께 드리며 원로목사님께서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628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선 교 사 전광혜(서아사아), 이은준강해경, 양해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리데사),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박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누(인도), 스프로토보로이, 필리본, 프르산뜨, 수레시, 수비쓰, 알로롱, 비시루뽀도, 보디소프, 린툼, 수린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성진홍성임(필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미다카스카르)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	---



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7, Samsu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iseoulchurch.or.kr>

“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 고전 2:14-16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밖에 안 되는 인간의 마음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허물며 유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자가 아무도 없듯이(11절)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만 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이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와 구별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전까지는 영적 까막눈이었습니다. 자신은 꽤나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자부하였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 속물 중에 속물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신령한 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16절). 헬라어의 원뜻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생각과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요 10:10, 요 10:14-16, 마 20:28)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제안도 거절하시고,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 미련하다고 여기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딤후 2:4, 7)고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구속의 일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맺는 말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나팔을 불어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삼위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는 반열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전재홍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3-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48(시 106)...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8(3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2부 고전 3:1-5
 3부 사 51:17-23, 53:1-12... 인 도 자
 흥해작전 승전보고3부 예배 시... 말 은 이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2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서창원 목사
 3부: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종윤 목사
 * 찬 송 Hymn ...1,2부 452(505) / 3부 357(39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중 어른,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84:1-2 인 도 자
 찬 송 19(4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창 17:9-14 인 도 자
 설 교 ... “언약의 표징: 할례” ... 인터넷 영상
 찬 송 285(209)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금주의 성구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옳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이사야 51:23)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이번주 심방 일정
 2-3, 4-4, 5-4, 16-5다락방
 - 2020 흥해작전 승전감사예배
 오늘 3부 예배 시에 흥해작전 승전보고가 있습니다.
 - 맥추감사절
 7월 첫주일(5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성찬예식이 있으며 맥추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 1,2,3,4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05명	341명	1,546명	2,227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6/2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21일	헌 금	34,133,608	
	교회학교운영비		334,000
	선 교 비		38,827,400
	행 사 비		121,200
	구 제 비		300,000
	비전2020		7,680,000
	출 판 비		21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274,810
	통 신 비		675,010
	수도광열비		2,210
	차량유지비		1,906,700
	소모품비		229,090
	환경유지비		570,800
	수선유지비		1,957,000
	식당운영비		306,400
	합 계	34,133,608	62,566,62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